

# 독서치료에서

## 지도 읽기와 산 오르기



좀 오래 전 이야기이다.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 전해보려고 한다. 여름 방학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덕유산 관광을 간 적이 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앞에 앉은 몇몇 사람이 목적지인 덕유산에 대해 신나게 말을 하고 있었다. 서로 주거나 받거나 산의 모양새와 길에 대해서 말하는 품이 일가견이 있는 성 싶었다. 등산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많아 보였다. 그 중 한 사람의 무릎에는 두툼한 지도책까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지도에서 산을 읽어가며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자니 빨리 도착하여 산에 오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졌다.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등산에 나서기 위해 주차장에서 정해진 숙소로 이동할 때 살펴보니 조금 전까지 이야기에 열을 올리던 그룹은 복장도 뛰어났다. 점퍼와 바지, 모자와 등산화가 두루 잘 어울렸다. 복장의 색깔도 다채로웠다.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에 새 것을 갖추고 온 것처럼 보였다. 또 한 사람은 특이하게도 군용 나침반을 허리

춤에 차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덕유산 높이의 산을 오르는데 복장을 저렇게까지 전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자신의 불량한 복장을 살피며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배당받은 방에 여장을 풀고 자유롭게 그룹을 형성하여 산을 향해 달리는 시간이 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불량 그룹에 속해 움직이게 되었다. 사복의 김 선생 신 선생, 심리의 임 선생, 정의의 정 선생 이 선생, 또 다른 학과의 아무개 아무개, 이런 식으로 복장에 그다지 성의가 없고 손에 지도도 들지 않은 사람들이 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서로 의논한 것이 없는데도 저절로 그룹 형성이 그렇게 되었다. 나는 평소엔 집 근처에서 산책할 때 입는 옷과 신발을 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다. 그 가운데 사복의 신 선생은 웃은 우리와 비슷했고 신발은 학교 올 때 신는 낡은 신사구두를 그대로 꿰신고 오기도 했다.

날이 어두울 것을 염려한 우리는 걸음을 빨리했다. 달리다 시피 했다. 우리는 금방



**김 정 근**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jgunkim@yahoo.co.kr



복장 양호하고 손에 지도를 지참한 그룹을 추월했다. 갈림길이 있을 때는 중지를 모아 한 길을 택했다. 덕유산도 실제로 타보니 생각만큼 만만하지는 않았다. 중턱을 지나서부터는 보통 가파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조금 험 험거리기는 했지만 너끈히 산 정상에 닿았다. 여러 도(道) 여러 군(郡)에 걸쳐 있다는 산의 위용을 잠시 둘러본 뒤 우리는 다시 하산 길에 올랐다. 내려올 때는 엉덩방아를 몇 번 찢기는 했지만 시간은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걸어 절을 지나고 조금 더 내려와 거의 평지까지 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추월한 복장 모범생에다 지도 읽는 그룹을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물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멤버는 아까 그대로였다. 그들은 예의 지도를 가운데 펴 놓고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복장 불량하고 지도도 없는 가난뱅이 같은 우리 일행이 나타나자 그들은 자리를 권했다. 우리가 앉는 시늉을 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들 오시오, 산 참 험하지요. 우리도 혼 났수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혼수를 두었다. “산 정상 볼만하지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그들도 정상적으로 산을 다 올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도중에 더 이상 그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못 보는 다른 길로 해서 왔다는 것인가. 그러나 나는 다 알 수 있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복장 불량 그룹 멤버들은 하나 같이 그 엉큼한 복장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 위에서 산을 올랐고 내려왔던 것이다. 속 깊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 함께 길을 내려와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은 헤어졌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 한다는 사람들 속에 이와 유사한 모습이 보인다. 지도를 읽는 그룹과 산을 오르는 그룹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지식형’ 그룹과 ‘체험형’ 그룹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쪽은 지식과 기교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치유와 변화에 치중한다. 지식형으로 가는 사람들은 독서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방법을 세우는 반면, 체험형으로 가는 사람들은 바로 치유서를 읽고 아픔의 완화와 치유를 경험한다.

나는 독서치료에 관한 한 등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체험형’으로 가야하며 ‘지식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다는 독서치료의 본질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다. 솔직히 어떤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편의상 ‘지식형’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사실 독서치료에서 ‘지식형’이란 우리의 특수한 상황 밖에서는 성립할 수도 없는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등산을 나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산은 왜 가나? 산에 갔으면 당연히 산을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닌가. 지도를 연구하고 산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은가. 터구나 옷이나 장비를 자랑하려고

산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을 보자. 산은 오르지 않고 바위 위에 앉아 지도를 사이에 두고 말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독서치료 마당에서도 애써 ‘체험형’을 외면하면서 ‘지식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 관찰이긴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독서치료는 책읽기를 통해 마음 아픈 이들을 돕는 활동이다. 책을 매개로 하여 마음의 상처 치유와 사람의 변화를 유도한다. 사람의 상한 감정이 활동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대상이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특별하고 사려깊은 지향을 가지고 이 활동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실비 이외의 돈과는 상관없이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음에 상처를 지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돕는 일이 그리 간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독서치료를 마치 쉽게 개업할 수 있는 부업 수준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는 부업 광풍에 휩싸여 있다. 사교육시장이 이것을 부채질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다루는 과제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책읽기를 통한 마음 치유라고 하는 본령은 자꾸 비켜가면서 일종의 비즈니스 기술로서 전수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독서치료가 일종의 비즈니스 품목으로 강조되었을 때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무엇보다 사람의 아픈 마음에 대해 공감하고 동정하는 측면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진정성이 설 자리를 잃는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치유 체험의 요소가 경시되는 반면 치유에 ‘관한’ 지식의 요소가 부각된다. 지도 위에서 등산을 하고 마는 식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적 부분이 점점 흐려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립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과 기교가 전부인 것처럼 되고 만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꼴이 된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가 그동안 신선하고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서 고전하는 일단의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 잘못된 흐름을 어떻게 바로잡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서 일차적으로 사람의 마음 치유에 관심을 집중하는 ‘진정성’의 회복이 거론된다. 원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비즈니스적인 욕망을 줄이고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돌보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방법론의 측면에서 ‘체험형’ 진행이 강조되기도 한다. 직접 치유서를 읽자는 것이다.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가에서 명상을 하고, 호흡과 자세를 고르고 동작을 취하는 등 참여자의 체험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진행자의 말과 이론은 차라리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도를 읽는 것보다 산을 오르는 것이 등산의 본질이라는 쉬운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四)